

## 실낙원인가 복낙원인가\*

- 주을온천의 백계 러시아인 마을 ‘노비나’

김진영\*\*

1. ‘복낙원’의 재현: 백계 러시아인 안콥스키의 노비나 촌
2. 실낙원의 발견: 김기림이 바라본 노비나 촌
3. 노비나 촌의 특수성: 맺는 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함경북도 경성의 주을온천 지역에 존재했던 백계 러시아인 마을 ‘노비나’에 관한 것이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내전 후 온 가족을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해온 안콥스키 일가는 사냥과 농경 이외에 망명 러시아인들을 위한 여름 별장촌을 운영하면서 “호랑이와 인삼의 나라”에 “가장 문화적이고 진정 러시아적인 보금자리”를 일구었다. 교회당, 극장, 묘지까지 갖추고 있었던 이 전설적인 영지의 백계 러시아인들은 하르빈과 같은 국제도시의 ‘롬펜로인’들과 달리, 자급자족하는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노비나 촌 안에서만큼 그들은 주인이었다. 노비나의 특수성은 상해나 하르빈,新京과 같은 문명의 혼혈도시가 아니라 조선과 주을이라는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연세대학교

원시적 자연을 배경으로 하기에 더욱 부각될 수 있었고, 당시는 물론 먼 훗날까지도 백계 러시아인들은 노비나를 '낙원'과 '동화의 세계'로 기록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노비나 촌의 백계 러시아인을 향한 조선인 관찰자의 대조적 시각이다. 이 논문에서 비교분석하는 김기림의 주을 인상기는 노비나에 대한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곳을 울적하고 센터멘털한 곳으로 규정 짓는다. 노비나를 통해 느끼는 애수의 감정은 곧 식민지 조선인 김기림 자신이 경험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김기림의 여행기는 낙원상실의 체험기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주을, 노비나, 백계 러시아인, 안콥스키, 김기림, 이효석

온천에서 삼마정쯤 들어간 산골은 망명해 있는 외국 사람의 부락 '노비나' 촌이라는 것인데, 여름이 되면 그 부락이 피서지로 변해서 도회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동안 모여들곤 했다.<sup>1)</sup>

## 1. '복낙원'의 재현: 백계 러시아인 안콥스키의 노비나 촌

국내 (탈)식민 모더니티 담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망명 러시아인을 바라보는 근대 조선의 관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논의가 등장하는 추세이다.<sup>2)</sup> '동양의 파리' 하르빈이나 신경, 상하이 등의 무국적 거주자들

1) 이효석, 「화분」, 『이효석전집』 4, 창미사, 1983, 202쪽.

2) 대표적으로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문화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190-231쪽; 김주리, 「이효석 문학의 서구지향성이 갖는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387-408쪽; \_\_\_\_\_, 「식민지 시대 속 온천 휴양지의 공간 표상」, 『한국문화』 40,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28-155쪽;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한국

관찰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기억할 것은 서구화 된 근대도시의 대척점이라 할 조선 백지에도 엄연히 그들만의 독립적인 공동체사회가 존재했으며, 그것이 이주와 경계 넘기에 주목하는 오늘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흥미로운 문화사적 자료가 된다는 사실이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지속되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내전이 1922년 가을에 마침내 막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른바 '백계 러시아인', 즉 적군에 맞서 싸우던 백군과 그 가족들, 또 혁명의 반대편에 섰던 제정 러시아인들의 난민 역사는 시작된다. 일찌감치 유럽을 향해 조국을 등졌던 망명 러시아인들과 달리, 시베리아에서 연해주까지 밀린 끝에 패잔병이 된 극동지역의 백계 러시아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탈출구가 한반도였다. 1922년 10월 말에서 11월초까지의 기간 동안 포시에트 항구를 거쳐 원산에 도착한 백계 난민의 숫자가 적게는 9천명에서 많게는 1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데,<sup>3)</sup> 그들 중 대부분은 곧 중국, 일본, 북남미, 오스

---

현대소설학회, 2007, 47-69쪽; 오태영, 「'朝鮮' 로컬리티와 (탈)식민 상상력: 이효석의 『화분』과 『벽공무한』을 중심으로」, 『사이間 SAI』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229-259쪽; 서재원, 「이효석의 일제말기 소설 연구: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265-291쪽;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노스텔지아와 유토피아: 『벽공무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275-305쪽; 이양숙, 「일제 말 이효석과 유진오의 도시 읽기: 「하얼빈」과 「신경」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 371-399쪽; 김미현, 「이효석문학에 나타난 문화번역과 경제사유: 『벽공무한』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361-388쪽 등을 들 수 있다.

3) 9천명은 볼코프의 집계이고, 1만5천명은 클라크의 것이다.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연구로는 C. B. Волков, 「К вопросу о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Корею в начале 20-х годов,」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ып. 2,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1 C. 149-156; Donald N. Clark, "Vanished Exiles: The Prewar Russian Community in Korea," in Dae-Sook Suh 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 41-57; \_\_\_\_\_,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Eastbridge, 2003, pp. 142-155 참조.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들 관련 자료를 가장 풍부히 망라한 국내 연구로는 황동하,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향토서울』 83, 향토서울, 2013)가 독보적이다.

트레일리아, 필리핀 등의 집단 거주지를 찾아 떠났고, 1925년에는 136명 정도만 조선 각지에 흩어져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4)</sup> 1936년에 집계된 한반도 내 백계 러시아인이 203백 명, 1938년에는 100명 정도에 달하며, 주로 함경도에 거주했다고 한다.<sup>5)</sup>

구한말부터 서있던 정동의 제정 러시아 공사관에 붉은 기가 걸리면서 소련 영사 바실리 샤르마노프(Василий Шарманов)가 부임한 것이 1925년이지만, 1백여 명의 러시아인이 경성에 거주하던 1920년대 말에도 '적계' 러시아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sup>6)</sup> 1946년의 소비에트 영사관 폐쇄 직전까지 경성에 주재했던 소련 시민이 36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통계를 고려한다면,<sup>7)</sup> 러시아 혁명 이후 줄곧 조선의 일반 시민이 접했던 러시아인은 대부분 '백계' 러시아인이었다고 봐야 마땅하다. 해방 공간에 출몰한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혹은 환대 받고 혹은 혐오되던 그 시기에 도 '백계'는 혁명과 무관하게 '하얀' 러시아인으로 일반화 되면서 이데올로기적 분류로서보다는 인종적인 범주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국적자가 된 백계 러시아인들은 운이 좋은 극소수만이 외국 상사와 은행과 같은 정규 직장에 취업했을 뿐, 보통은 외국어 교습, 통번역, 소규모 상공업(빵집, 양복점, 미용실 등)에 종사하거나, 보따리장사, 운전사, 가정부, 카페 여급, 무용수, 매춘부 등의 막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백계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초라하고 궁핍했다.

서울에 와 있는 백계 러시아인이 있으나, 그들은 처지가 처지이니  
만치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 소위 러시아 빵이나 기성 양복 또는

4) 『동아일보』 1925년 1월 31일자 기사. 황동하,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 『향토서울』 83, 향토서울, 20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92쪽에서 참고.

5) 1936년 통계는 「경성가두의 투입자」, 『조광』 2권 3호, 1936.3, 106쪽 참조. 1938년 통계는 「백로인의 망명촌: 노비나의 금석담(今昔譚) 5」, 『조선일보』 1938년 6월 8일 기사에 따른 것이다.

6) Clark, Op. cit., p. 45.

7) F. I. 샤브쉬나, 김명호 옮김,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1992 참조.

양복감을 어깨에 들쳐메고 돌아다니며 근근히 여명을 이어간다. 그들이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각처에 망명하여 있으며 무슨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는 모르거니와 그들 중에는 옛날의 귀족들이 많다. 하여간 처음이야 끝이야 어쨌든 그들을 볼 때는 같은 외국 사람이지만 그 인간만이 펍 딱해 보이기도 한다.<sup>8)</sup>

그런데 이처럼 가련한 백계 러시아인들 사회에서 유독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자신만의 ‘낙원’을 일구었던 일가가 있다. ‘야오시키’, ‘양코스키’, ‘양씨’ 등으로 일컬어진 백계 러시아인 안콥스키(Янковский) 가족이다. 그들은 함경북도 경성 주을온천 부근에 ‘노비나’(Новина, Novina) 마을을 조성하여 자신의 영지 겸 별장촌으로 운영했다. 극동의 러시아 망명객들 사이에서는 물론 조선 내에서도 전설에 가까웠던 이곳에 대해, 구라파 취향의 탐미주의자 이효석은 “노비나 촌에서 느끼는 Exoticism을 하나의 창처럼 바라보면서 그 정서를 금붕어처럼 호흡하며 즐겼다”고 되어 있으며,<sup>9)</sup> 당대의 모더니스트 김기림 역시 지대한 호기심을 갖고 주을온천 지역을 답사한 후, 그 기록을 남겼다.<sup>10)</sup>

8) 「대경성의 특수촌」, 『별건곤』 33, 1929.9, 109쪽.

9) 정한모, 「효석론」, 『이효석전집』 8, 79쪽.

10) 노비나 촌의 실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고, 과거 신문잡지·소설을 장식했던 몇몇 단편적 정보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동시대 자료로서는 김동환의 「초하의 관북기행」(『동아일보』 1928.7.20~22), 김기림의 「주을온천행」(『조선일보』 1934.10.24.~11.2), 장서언의 「소한집」(『동아일보』 1938.9.7), 성준덕의 「사냥: 백두산」(『경향신문』 1967.10.14~18) 등이 안콥스키 별장촌 풍경을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본격적인 노비나 탐방기로는 『조선일보』 1938년 6월 4일~8일자에 연재된 함북특파원 오쾌일의 「백로인의 망명촌: 노비나의 금석담(今昔譚)」이 있다. 학술 논문으로는 황동하,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 『향토서울』 8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293-296쪽이 유일하게 노비나 촌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안콥스키 일가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자료도 한 편 있기는 한데, 노비나 시기 이전에 연해주 지역을 주름잡던 미하일 안콥스키까지만 상세히 서술될 뿐, 망명 이후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cheongsunghwa.blogspot.com/2010/09/blog-post.html(검색일 2015년 7월 13일). 노비나 자료는 안콥스키 일가의 회고록이 주를 이루며, 그밖에 다음의 외국어 문헌들이 있다. M. L. Taylor, *The Tiger's Claw*, Burke, 1956; M. M. Гинце, “Новина и Луко

함경북도 오지에 자리를 잡고 사냥과 농경 등으로 자급자족한 안콥스키 일가와 관련하여 당시 각종 풍문이 난무했던 듯한데, 그중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들”도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나무 한 그루에 의지한 채 심연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성에서 살았다. 그 성에는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사냥꾼의 아름다운 딸과 사랑에 빠진 무시무시한 용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용의 애처로운 울부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사냥꾼 대장은 자신의 사냥칼로 아내의 맹장을 잘라내어 생명을 구했단다. 또 온가족이 호랑이 스테이크와 보드카만 먹고 산다고 했다! 그러나 소문이 전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그런 야만인들을 조선 땅에서 살게 했을 뿐더러, 심지어 ‘러시아국기’를 펴럭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1)</sup>

소문을 전한 당사자인 메리 L. 테일러는 빅토리아 안콥스카야의 초대 노비나에 머무르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후 『“호랑이 발톱”(A Tiger’s Claw)』이란 제목의 한 권 책으로 묶어냈다. 노비나에 대해 가장 길고도 상세한 관찰 기록인 이 책에서 테일러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여 전한 진상은 이렇다.

조선 북부의 뾰족뾰족한 봉우리들과 울창한 계곡들 틈에서 플라톤

---

морье: поместья семьи Янковских в Корее (Воспоминания юного дачника),” *Русская Атлантида*, Россия, 2004:13, С. 21-32; 2004:14, С. 22-29; 2004:15, С. 37-49; Т. Кушнарева, *Янковские: Записки клуба ‘Родовед’*, Изд-во ВГУЭС, 2008; Л. Н. Андерсон, “А помнишь тот закат у моря?,” в *Валерий Янковский: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Владивосток, 2010, С. 143-52; Т. Симбирцева, *Семья Янковских в истории Приморья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ре Сарам*, <http://koryo-saram.ru>(검색일 2015년 7월 13일).

11) Taylor, Op. cit., pp.23-24. 이 논문에 실린 모든 번역문은 인용자 자신의 것임을 밝혀둔다.

이 꿈꿨을 법한 공동생활의 실례가 펼쳐지고 있었다. 안콥스키 가족처럼 무일푼인 망명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수행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이 박약한(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식당 일이나 가축과 꿀벌 기르는 일 같은 단순 가사노동을 했다. 노역자, 목수, 장인들은 필요한 건물을 지었다. [...] 어떤 이들은 농사를, 다른 어떤 이들은 말과 사슴과 개 돌보는 일을 했다. 어부 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총을 잘 쏘면서 용기와 체력을 갖춘 사람들은 사냥꾼이 되었다. 각 분야마다 주어진 역할의 감독이 있어서, 그들은 일종의 계급장인 텍사스 카우보이모자를 썼다. 모든 일을 우리 안콥스키 자신이 총괄했다. 급료를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일상의 필수품을 모아둔 공동 보급소가 있어서, 모두 자신의 능력이 되는 만큼 내놓기도 하고,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씩 가져다 쓰기도 했다.<sup>12)</sup>

환상의 신화와 일상의 신화 사이 어디엔가 존재할 법한 이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대해서는 거주자들의 회고록이 주요 자료를 이룬다. 안콥스키 일가는 외국인 별장촌 운영과 사냥, 녹용과 인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문학, 무용, 연극 등의 예술적 취미와 함께 삶을 꾸려감으로써 조선 벽지의 노비나 촌을 “가장 문화적이고 진정 러시아적인 보금자리”로 재탄생시켰다.<sup>13)</sup> 가족들은 특히 문학에 재능이 뛰어나서 망명 생활 중에도 『작은 성(城)』(Теремок)이라는 동화 제목의 가족 문집을 발행하는가 하면, 시인이 된 딸 빅토리아는 노비나를 배경으로 한 자전 소설 『조선에서 있었던 일』(Это было в Корее..., Новина, 1935)과 망명시

12) Ibid., p. 25.

13) 하르빈에서 발행된 망명 잡지(주간지) 『루베쥬』(Рубеж)는 “조선의 타이가에서 발견한 러시아 동화”라는 제목으로 노비나 휴양촌을 다루면서 “가족의 힘으로 일구어낸 가장 문화적이고 진정 러시아적인 보금자리”(культурней шее, подлинно русское гнездо из своей семьи)라는 표현을 썼다. Аргус, “Русские сказки в корейской тайге Новина - островок бывлой России,” Рубеж, №. 37 от 8 августа 1934, С. 17.

모음집 『떠돌이의 나라들』(*По странам рассеяния*, Нью-Йорк, 1976)을 발간했다. 노비나 촌의 '영주' 유리 안콥스키 역시 호랑이 사냥을 주제로 한 회고록 『호랑이 사냥 반백년』(*Полвека охоты на тигров*)을 노비나 시절인 1943년에 집필했고, 그의 둘째 아들이자 빅토리아의 오빠인 발레리 안콥스키는 노비나에 대하여 여러 회고의 글 외에도 자전적 이야기 『네눈이』(*Нэнунни*)를 비롯한 단편 소설들을 썼다.<sup>14)</sup>

'네눈이'는 눈이 네 개라고 불릴 정도로 사냥에 뛰어났던 할아버지 미하일 안콥스키의 한국어 별명으로, 유리 안콥스키는 '네눈이 아들', 그의

- 14) 유리 안콥스키의 회고와 발레리 안콥스키의 노비나 이야기들은 2007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발간되었고(*Нэнун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диссея*, Рубеж, 2007), 2012년에는 발레리의 할아버지인 미하일 안콥스키의 회고(*Остров Аскольд*)까지 보태어 안콥스키 3대의 공동 저작 증보판으로 다시 한 번 출간되었다. 주울의 백계 러시아 망명객으로, 해방 후에는 잠시 소련군 통역관으로, 이후 강제수용소 포로(7년)로서 파란만장한 긴 삶을 살았던 발레리 안콥스키(1911-2010)는 강제수용소 복역 후 오호츠크 해 부근의 마가단과 모스크바 부근의 블라디미르에 정착하여 가족의 역사와 향토 문화, 사냥, 인삼과 녹용 재배 등에 관한 많은 책을 남겼다. 발레리 안콥스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 소련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캐나다로 망명한 가족과는 50년이 지난 1986년이 되어서야 단 한 번 재회할 수 있었다. 1996년에는 안콥스키 일가의 전설이 시작된 극동의 시데미 반도(현재 명칭은 안콥스키 반도)에 미하일 안콥스키 동상이 건립되면서 노비나 시절 이후 흩어져 생존하던 가족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안콥스키 일가의 망명 이야기는 니키타 미할코프의 TV 기록영화 시리즈물 『러시아 없는 러시아인』(*Русские без России*) 중 한 편인 『극동으로의 탈출: 안콥스키 일가』(*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исход: Янковские*)로 2009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영상물에서 당시 98세이던 발레리 안콥스키의 건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발레리 안콥스키가 남긴 많은 회고록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В поисках женьшеня: Рассказы*, Верхне-Волж. кн. изд-во, 1972; *Потомки Нэнунни: повесть и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ик, 1986; *Долгое возвращение: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Верхне-Волж. кн. изд-во, 1991; *Новина: Рассказы и быль*, Золотые ворота, 1995; *От гроба господня до гроба ГУЛАГА: Быль*, Маштекст, 2000; "Novina,"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2002, No.3(10), С. 119-133; *Корея. Янковским: Творческая сага*, Маркарт, 2003; *От Сидеми до Новин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сага*, Рубеж, 2011. 1925, 1926, 1927년에 한 권씩 타이프로 쳐서 만들었던 가족 문집 *Теремок*은 현재 블라디보스톡의 아르세네프 연해주 향토박물관(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м. В. А. Арсеньева)에 보관되어 있다.

아이들은 '네눈이 손자'로 일컬어졌다. 폴란드 귀족 출신의 미하일 안콥스키가 5년간의 시베리아 유형 후 블라디보스톡 부근 아스콜드 섬에 머물며 금광을 경영하다가, 1879년에 인근의 시데미 반도(Сидеми 또는 Сидими)로 옮겨 꽃사슴과 말 사육 및 인삼 재배용 영지를 일구면서부터 안콥스키 집안의 극동 대서사는 시작된다. 사냥과 동식물 채집에 일가를 이루었던 미하일은 생전에 극동 전역에서 제일가는 명포수로 명성을 떨쳤으며, 새로이 발견한 지역의 동식물에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기도 했다.

애초 사냥은 영지에서 기르는 동물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후 일가의 주된 취미 활동을 넘어, 마적(홍호자)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극동-연해주-만주 지역을 누비는 폴란드계 러시아인 카우보이를 상상하면 된다. 안콥스키가 개인적으로 조직하여 이끈 수비대에는 러시아인들 외에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고용되었으며, 이 수비대의 용맹한 활약 덕분에 안콥스키 영지 인근은 맹수와 마적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연해주에 주둔한 러시아 군대에 군마를 제공하고, 중국인들에게는 녹용과 인삼을 팔면서 안콥스키는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당시 가까이 지낸 동업자 겸 친구가 훗날 압록강 삼림채벌권을 독점하게 될 보리스 브리너의 아버지인 스위스 출신 사업가 율리 브리너(Ю. И. Бринер)이다. 다름 아닌 할리우드 영화배우 율 브리너의 할아버지로, 브리너 집안은 안콥스키의 노비나 영지에도 별장을 소유했으며, 그곳에 휴가 온 18세의 율 브리너는 안콥스키 자제들과 어울리며 사냥을 즐겼다.<sup>15)</sup>

혁명 후 백군 편에 서서 싸웠던 안콥스키 일가가 청진으로 망명한 것이 1922년으로, 이때의 가장은 미하일의 아들인 유리 안콥스키였다. 유리 안콥스키의 지휘 아래 시데미에서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조선에 다다

---

15) 극동 지역의 유지였던 두 집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 브리너의 아들 록 브리너가 쓴 책이 있다. Rock Brynner, *Empire & Odyssey: The Brynners in Far East Russia and Beyond*, Steerforth, 2006.

르는 광경은 한 마디로 '노아의 방주'를 방불케 한다. 홀란드 암소 8마리와 말, 사슴, 사냥개 몇 마리, 그리고 70명의 식솔을 거느리고 그들은 청진에 왔고, 얼마 후 주을 근처에 땅을 사 정착하여 제 2의 시데미를 조성했다. 말과 사슴을 치고,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또 사냥을 하면서 백계 러시아인들의 별장지를 운영한 그곳의 이름 '노비나'는 선조였던 폴란드인 기사의 성(姓)인 동시에 '새롭다'(НОВ-)는 의미의 슬라브어 어원을 지닌 명칭이다. 소나무 숲과 자작나무 숲, 백사장, 암벽 계곡의 빼어난 풍경을 배경으로 세워진 노비나는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으며, 1930년대에 또 하나의 작은 바닷가 별장지가 추가되었는데, 그곳은 '용현'의 일본식 발음인 '류켄'(Ryuken)에서 착안하여 푸슈킨의 서사시 「루슬란과 류드밀라」 첫대목에 나오는 '루코모리에'(Лукоморье, 작은 만)로 이름 붙여졌다.

1928년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한때 전설에 가까운 명성을 얻었던 노비나의 자취는 당시 하르빈에서 발간된 주간지 『루베쥬』(Рубеж, 1926~1945) 기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극동 지역 백계 러시아인들의 문예 교양지였던 『루베쥬』는 1928년 3월 26일자 잡지에서 안콥스키 남자들의 표범 사냥 이야기를 다룬 것을 시초로, 1943년 8월까지 총 19회나 노비나 관련 기사를 실었다. 극동 최고의 휴양지라는 홍보 성격이 강한 가운데 방문기와 스케치, 문화종교 행사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사진 자료는 물론, 커버스토리로 표지를 장식한 것만도 세 차례다.<sup>16)</sup>

16) 1932년 12월 10일 호(No.5)에는 “멋진 조선의 한가운데서: ‘노비나’ 스케치”라는 표제 하에 말 탄 휴양객 사진이 표지로 실려 있고, 1940년 9월 14일 호(No. 3)에는 “안콥스키의 조선 영지 ‘노비나’ 인근 ‘세 잔’ 폭포로 소풍 나온 러시아 휴양객들”이라는 표제로 4명의 러시아 미녀들(그중 한 명은 하얀 비키니 복장) 사진이, 1943년 8월 20일 호(No. 24)에는 “만주 타이가에서의 사냥”이란 제목으로 조선인 명포수 ‘신’과 두 명의 러시아인 사냥꾼(발레리 안콥스키, B. 발코프)이 포획물 앞에서 취한 포즈 사진이 실려 있다. 노비나 인근의 ‘세 잔’(три чаши) 폭포는 러시아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오세암 용택을 일컫는 듯하다. 통권 862호의 망명 잡지 『루베쥬』(‘경계’, ‘국경’이라는 뜻의 러시아어)는 현재 미국 하와이 대학교 해밀턴 도서관 러시아 자료실에 가장 충실히 보관되어 있다. 안콥스키 관련 자료 목록을 제공해준 자료실 사서 P. 폴란스키(Polansky)와 블라디보스톡

『루베주』에 실린 기사를 통해 보건대, 노비나의 전성기는 1934~1941년의 기간 동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노비나는 중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자연과 저렴한 가격에 해수욕, 하이킹, 승마, 배구, 온천, 사냥, 연극, 무용, 합창, 무도회 파티와 같은 각종 여흥, 러시아 음식, 러시아 문화, 게다가 여름 휴양객들의 크고 작은 로맨스까지 보태어져 백계 러시아인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한창 때에는 예술 공연을 보러온 관객(일본인과 조선인 포함) 수가 2백 명을 넘고,<sup>17)</sup> 공동 저녁 식탁에 모인 사람들만도 1백 명이 넘었으며, 1937년에 세워진 정교회 성당의 예배에도 1백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sup>18)</sup> 안콥스키 가족과 상주하던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월부터 10월까지의 여름 시즌에 머물렀지만, 겨울 사냥을 즐기기 위해 만주,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부터 찾아오는 여행객들도 있었다. 『한국의 야생동물지』를 남긴 스웨덴 동물학자 스텐 베리만(Sten Bergman)이 탐사를 위해 함경북도 지방에 머물며 이용했던 거처 역시 주을(일본식 지명 Shuotsu)의 노비나였다.<sup>19)</sup>

백계 러시아인들이 노비나의 자연 환경과 분위기에 젖어 옛 러시아의 환영을 소환하고 향유하는 광경은 결코 놀라울 바 없는 일이다. 10대 소년기부터 30대 청년기까지 20년 넘게 그곳을 지켰던 발레리 안콥스키의 회상에 따르면, 노비나는 꽃향기 배인 ‘낙원’이자 ‘동화’의 세계였으며, 망명객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생활했다.

돌이켜 보면, 노비나와 루코모리에의 망명객들은 러시아 속담따마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생활했다. 낙원의 삶이었다. 4월이 되면 산에는 분홍과 자주빛 진달래가 피었다. 5월 초에는 인근의 일본인

---

대학의 히사무트디노프(A. A. Хисамутдинов)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 17) *Рубеж*, No. 37 от 8 августа 1934, С. 17. 공연은 민요 합창, 민속 춤, 연극, 시 낭송, 집시 합창과 집시 춤, 현대 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새벽 6까지 모여 춤을 추며 즐겼다.
- 18) *Рубеж*, No. 3 от 14 сентября 1940, С. 16; *Рубеж*, No. 35 от 2 августа 1937, С. 15.
- 19) S.베리만, 신복룡·변영옥 역주, 『한국의 야생동물지』, 집문당, 1999, 161-184쪽.

거주 지역 온보에 사쿠라가 만발했고, 밤이면 나무꼭대기마다 달린 램프들이 연분홍빛 꽃더미에 불을 밝혀 동화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사방에서 은은한 매화 꽃 향기가 풍겨왔다. 그 다음엔 살구, 배, 사과나무가 꽃을 피웠다. 6월부터는 큰길과 오솔길 가득 단 내음의 흰색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면 산이며 언덕이며 주황색과 붉은색 나리꽃과 선용초, 푸른색과 보라색 아이리스, 자스민 천지였다. 9월부터는 가을하늘 빛의 히아신스가 이어졌다. 산봉우리의 떡갈나무, 단풍나무, 중국호도나무, 물푸레나무 잎사귀 들은 온통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빛 무지개로 단풍이 들었다.<sup>20)</sup>

발레리의 기억이 떠올린 ‘낙원’과 ‘동화’는 노비나를 거쳐 간 다른 백계 러시아인의 기록에도 어김없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며, “동화적인 세계”(с сказочный мир), “낙원의 공간”(райский уголок), “동화 이야기”(a fairy-tale), “환상적인 러시아 공간”(дивный русский уголок), “러시아 동화”(русские сказки)와 같은 이구동성의 표현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단지 젊고 아름답던 먼 옛날과의 거리감에 의한 착시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회고적 서술에 있어서 뿐 아니라 동시대적 관찰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그 표현들은 ‘망명’이라는 유예된 삶의 비현실적 현실감을 가리키는 동시에, 거칠고 이질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만의 순수한 고유성을 지켜내려던 무의식적 노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동화의 세계란 곧 혁명과 망명의 현실이 허락하는 가장 이상적인 안전지대를 의미했다.

동시대인이 바라 본 노비나는 또한 ‘문화적이고 교양 있는’(культурный, культурнейший) “러시아인의 보금자리”(русское гнездо, русский очаг)로, 이때 러시아의 ‘문화와 교양’은 조선의 미개함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

20) Ю. Янковский, *От гроба господня до гроба ГУЛАГА*, С. 60-61.

산들을 배경으로 조선 북부의 오지에서 공연되는 발레 루스(Ballet Russe)라니! 그건 정말이지 한 편의 동화 같았다!21)

안동과 서울을 지나 3일쯤 더 가노라면, 야만의 조선 한가운데서 돌연 **교양 있는 러시아인의 안식처**가 눈앞에 나타난다.(원문 강조)22)

조선의 토착민들에게 이 모두가 가장 강렬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그들은 종종 '노비나'를 찾곤 한다. 흰 겉옷과 실린더 모양의 독특한 모자를 걸친 그들의 모습은 러시아 민속복(сарафан)과 나란히 있을 때 특히 대조적으로 두드러지며, 러시아인의 삶의 편린이 뚫고 들어온 세계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특히나 명확히 강조해 보여준다.23)

'문명과 야만'이라는 저 진부한 이분법의 구도 안에서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관계가 상호적이 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안콥스키 일가는 조선인과 가까웠다. 연해주 시절부터 조선인을 신뢰하여 고용했고, 언어를 구사했으며, 마을 아이 세 명을 가족으로 입양하고, 조선을 "제 2의 고향"이라 했다. 마을의 조선인들이 안콥스키를 영웅적 인물로, 중재자로, 자신들의 보호자로 여겼다는 기록도 있다.24)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호랑이와 인삼의 나라"에 온 "교양 있는 러시아인 식민지개척자"(культурный русский колонизатор)25)였다는 사실 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21) Taylor, op. cit., p. 26.

22) *Рубеж*, No. 50 от 10 декабря 1932, С. 12.

23) *Рубеж*, No. 37 от 8 августа 1934, С. 17.

24) Taylor, op. cit., p. 183. 안콥스키와 조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회고를 참조할 것. "안콥스키 가족이 개인적으로 조선인들하고 만큼 일본인과도 가깝게 지냈는지는 기억이 없다. 나 자신은 조선인들을 무척 좋아했다. 그들에게는 어딘가 러시아인처럼 인간적이고 솔직한 면이 있었다." Гинце, "Новина и Лу коморье," С. 45.

25) *Рубеж*, No. 13 от 26 марта 1932, С. 12. 안콥스키를 조선인들의 착취자로 묘사한 소설로 고려인 작가 명철의 『마을 사람들』(『레닌 기치』, 1980, 9.30~10.3)이 있다고 하나,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다. Clark, op. cit., p. 149 참조.

요컨대, 안콥스키는 노비나를 통해 '러시아'라는 실낙원의 복원을 실현하고자 했고, 그것은 미개한 조선 원주민으로부터 격리된 삶의 조건 하에서만 가당한 일이었다. 조선인이 안콥스키의 피고용인이고, 사냥 친구이고, 또 양자였던 순간에도, 노비나 별장촌은 여전히 "사나운 개가 있소.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오"라는 게시판의 '돌문'으로 가로막힌 배타적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sup>26)</sup> 그리고 그 고립된 공간에서 그들은 원시 정글의 '타잔'이 되었고, 목축과 수렵의 신 '판'(Pan)이 되었고,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가족이 되었다.<sup>27)</sup>

노비나의 안콥스키 일가에 대한 주된 자료는 회고록이라고 앞서 말했다. 내부인의 자기 서술이 주를 이룬다는 것부터가 배타적 고립주의의 혐의를 불러일으키는 바이지만, 무엇보다 노비나에 거주했던 안콥스키 일가와 주변 러시아인들의 회고에서 조선이 '배경' 이상의 관찰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유리 안콥스키와 발레리 안콥스키, 그리고 시인이었던 빅토리아 안콥스카야의 회고는 모두 자기들 자신, 즉 노비나의 백계 러시아인 이야기지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술의 초점은 떠나온 러시아와 노비나 안에서 영위된 자신들의 삶에 고정되어 있을 뿐, 조선이나 조선인(사냥꾼을 제외한)은 관심의 반경에서 물러나 존재한다. 조선은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향유한 '동화 같은 세계'의 무대 배경을 제공했을 따름이다.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조선이 탐험과 관찰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체류 기록이 민족지학적이고 분석적인 패턴에 충실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노비나 촌 백계 러시아인들의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발레리 안콥스키의 여러 회고록에는 특이하게도 '이야기'(рассказ), '자전적 소설'(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창작 모험담'(творческая сага)과 같은 장

26) 김기림, 『김기림전집』 5, 심설당, 1988, 266쪽.

27) 타잔, 로빈슨 가족, 판은 노비나에 대한 회고에 등장하는 비유들이다. 로빈슨 가족은 나폴레옹의 혁명을 피해 뗏목을 타고 도망치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스위스 가족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르상의 부제가 붙는다. 빅토리아 안콥스카야의 자전 소설 또한 현실과 비현실을 뒤섞어버린 혼종 장르의 형식으로 씌어져 있다. 마치 사실성과 허구성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으며, 또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다는 투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을 해보면, 이는 현실과 비현실을 의식적으로 경계 짓지 않으려하는 망명자적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노비나의 러시아인들은 과거를 지키기 위해 현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망명객들이었다. 안콥스키 일족은 모두 훌륭한 이야기꾼이었고, 그들은 흡사 『천일야화』의 주인공처럼 매일의 이야기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사실과 허구 중간에 위치하는 그들 회고록의 장르는 사실과 허구의 중간 지점에 존재했던 '동화 같은 노비나'와 그 복낙원 안에서의 삶을 재현해주는 최적의 방식이었던 셈이다.

## 2. 실낙원의 발견: 김기림이 바라본 노비나 촌

김기림은 조선일보 기자로서 1934년 가을에 주을온천을 답사했다. 그 답사기가 1934년 10월 24일~11월 2일자 『조선일보』에 연재된 「주을온천행」이다. "온보[朱乙溫堡] 거리에는 발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먼 산골짜기로 꼬리를 감춘 탄탄대로를 더듬어 올라"간 끝에 다다른 곳이 "주을온천에 한 특이한 매력을 주는 백계로인 '양코스키' 별장촌"이었다고 김기림이 말할 만큼, 노비나 촌의 명성은 이미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기림의 주을 여행보다 한 달 앞선 1934년 9월에는 『삼천리』 잡지에 「주을온천의 갓쥬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국풍경'을 소개하기 위해 「명사십리의 금발랑(金髮娘)」과 함께 실린 기사였다.

선교사, 교수, 의사, 회사 지배인 가족 등이 모여 들던 원산 명사십리와 망명객 마을의 풍경은 대조적인데, 그 풍경의 차이는 돌아갈 고향을 둔 여유 있는 서양인과 "여기서 아주 죽을 작정으로" 모여 살게 된 러시아인의 운명적 격차이자,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조선인 관찰자의 시선에

담긴 차별적 선입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전 조선에 화려하기로 으뜸”인 원산 서양인촌의 “모두 빨간기와 파란기와를 인 사치스러운 문화주택”과 “한쪽에 백두산 줄기로서 흘러내리는 보기에도 시원한 주을천이 있고 그 냇가에 운치 좋게 아담하게 앉은” 별장촌이 걸모습부터 대비되는 가운데, 노비나 촌의 러시아인들은 명사십리의 서양 문명인들과 달리 혹은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속 인물로, 혹은 원시인으로, 혹은 집시 족속으로 그려진다.

여름날 [...] 저녁만 되면 저녁밥 일찍이 끝내고 남녀들이 몸에 실한 오라기 아니 걸치고 그 앞 강변에 나가 물속에서 가달춤도 추고 뛰어다니며 원시인유(原始人類) 같이 자유롭게 방분하게 놀니다. 겨울 되면 [...]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고까색(高架索) 농부의 따님같이 차림 차리고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짧은 스카트를 입은 노서아 여자들이 흔히 목욕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네들은 입으로 가느다랗게 늘 노래를 불러요. 집시-족속들인지도 모르지요.<sup>28)</sup>

흥미롭게도, 또는 당연하게도, ‘원시인유’ 내지 ‘집시족속’과 흡사한 이 러시아 망명객들이 알고 보면 옛날 제정러시아 시대에는 대학교수, 장군, 부자 등의 “다 경력들은 그럴듯한” 사람들이다.<sup>29)</sup> 명사십리의 외국인인 ‘현재’의 명사(名士)들이라면, 주을의 러시아인은 ‘과거’의 명사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의 조선인의 눈에 더더욱 이국적인 존재일 수밖에

28) 「주을온천의 갖췄사」, 『삼천리』 1934, 9, 377쪽. 논문에 인용된 옛 글들은 현대 어법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 교정을 가했다.  
 29) 망명러시아인들은 일단 제정러시아 시대의 상류층(귀족, 부호, 고관 등) 출신으로 상정되곤 했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을 통해 일반화된 이미지와는 달리, 망명한 러시아인들의 출신 성분은 실제로 다양했으며, 그들 중 상류층의 비율이 제정 러시아 내에서의 비율에 비해 높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교육 수준만 큼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Marc Raeff, *Russia Abroad: A Cultural History of Russian Emigration, 1919-1939*,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26.

에 없다. 자기들만의 성당과 묘지를 갖추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자기들만의 노래를 부르며 자급자족하는 이 러시아 망명객들은 “조선냄새 나는 서양사람 별장지대”에서 조선 노래(“명사십리 해당화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갓주사 내사랑아...”) 읊조리는 일반 서양인들과는 전혀 다른 “참 특이한 존재”인 것이다.

현재로부터 빗겨난, 즉 ‘망명’이라는 현실의 시공간에서 원시적 비현실의 세계로 뒷걸음질 쳐버린 러시아인들의 피서 광경은 심지어 ‘광란’이라 할 만큼 자유분방해보이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뿌리 잃은 그들의 향수는 영구하고 슬퍼 보인다. 「주을온천행」에서 김기림이 기술하고 있는 노비나 촌의 정경은 다음과 같다.

여름이면 상해 함이빈 등지로부터 수백명의 백계로인 남녀가 이곳에 모여들어서 밤을 새어 강한 ‘윗카’를 기울이면서 ‘사바귀춤’을 추며 혹은 ‘볼가’의 뱃노래를 부르면서 광란의 한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정원 한복판에 세운 높은 기죽(旗竹) 꼭대기에서는 제정 ‘러시아’의 옛 국기를 한구석에 떠붙인 흰 3각기가 푸른 하늘을 등지고 펄럭거린다. 무너져버린 그들의 옛 영화와 꿈에 대한 영구한 향수와 추억의 표상이다. 그들은 아침마다 ‘레코드’로 옛 국가를 들으면서 이 상복 입은 기폭에 향하여 거수의 예를 함으로써 지나간 날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sup>30)</sup>

“무너져버린 그들의 옛 영화와 꿈에 대한 영구한 향수,” 그리고 그 속에서 술과 노래와 춤으로 지새우는 광란의 한여름 밤 - 이것이 바로 조선인의 눈에 비친 ‘유예된 삶’의 현장이다. 실제의 눈으로가 아니라 ‘의식’의 눈으로 편집해낸 현장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나라 잃은 망명 러시아인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운명적으로 ‘애수’의 포로일 수밖에

30) 김기림, 앞의 책, 265쪽. ‘윗카’는 보드카를, ‘사바귀춤’은 장화춤(сапоги, 발음상으로는 ‘사빠기’에 가깝다), 즉 코사크 춤을 말한다.

에 없다. 그래서 신흥의 기상이 넘치는 소비에트 노농 러시아인들과 반대로, 몰락해버린 제정 러시아인들은 가련하고, 병적이고, 또 우울하게 비쳐진다. “큰 바다에 뜬 파선된 배의 자유”와도 같은 그들의 부유(浮游)가 한편으로는 짓밟힌 자존심의 분노를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폐의 “에로와 구로”를 퍼뜨린다는 것이 당시 하르빈을 중심으로 백계 러시아인에게 고정되어 있던 이미지였다.<sup>31)</sup> 김기림은 전언(傳言)의 서술 어미 (“...다고 한다”)를 통해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반복해 인용한다.

우리는 쓴 웃음을 웃으면서 돌층계를 돌아서 물소리를 좇아 내려갔다. 골짜기를 굴러 떨어지는 급한 물은 한데 모여서 이 정원 한가운데 시퍼런 소를 이루었다. 깨끗한 모래가 그 푸른 소를 조심스럽게 담고 있고 깎아 세운 듯한 바위돌들이 그것을 다시 에워싸고 있다. 높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걸터놓은 위태로운 나무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하늘을 가리는 깊은 숲 속 오솔길을 헤치고 낮은 골짜기의 모래불까지 내려갔다.

우리의 체중을 실고 추기던 허공다리가 아찔하게 머리 위에 쳐다보인다. 여기서 여름이면 수많은 뜻있는 백인 남녀가 어리꾸진 물장난

31) “큰 바다에 뜬 파선된 배의 자유”는 박 계렌스키, 「합이빈의 정조」, 『삼천리』 1933.9. 652쪽으로부터의 인용이다. “에로와 구로”는 ‘에로틱’과 ‘그로테스크’의 줄임말로 백계 러시아인들이 종사하는 하르빈 환락가를 일컬어 자주 사용되었다. 식민지 조선인의 백계 러시아인 이미지는 대부분 하르빈, 상해, 신경 등의 도시 여행을 통해 형성된 것인데, 1930년대에 유행한 여행기류의 기고문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홍양명, 「상해의 백계 러시아 여성」, 『삼천리』 1932.12. 418-419쪽; 박 계렌스키, 「합이빈의 정조」, 『삼천리』 1933.9. 651-653쪽; 홍종인, 「애수의 하르빈」, 『조광』 1937.8. 210-217쪽; 김용팔, 「할벤의 인상」, 『문예』 18, 1953.11.(1938년의 인상에 대한 회고), 157-160쪽; 이운곡, 「합이빈의 로인 에미그란트」, 『조광』 1939.8. 96-99쪽;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만선일보』 1940. 5.25-28 등 참조. 하르빈을 주제로 한 글은 아니지만, 소비에트 여성의 원기 왕성한 남성적 이미지와 백계 러시아 여성의 순종적 가련함을 대비한 흥미로운 기사로는 김옥엽, 「소비에트의 활발한 여학생」, 『삼천리』 1934.11. 178-182쪽 참조. 만주/하르빈 여행에 관한 주요 일차 문헌은 소재영 편, 『간도 유랑 40년』, 조선일보사, 1989;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사, 2010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과 마음 빈 웃음소리와 아우성 속에 잃어버린 그들의 왕국에 대한  
끝이 없는 향수를 훌어버리면서 피부에까지 치밀어 오는 고국으로  
향하는 끊임없는 열정을 한가지로 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마치 어느 '러시아' 작가의 소설 속을 헤매고난 듯한 막연한  
느낌을 가슴에 받아가지고 그 '센티멘탈'한 뜰을 나와버렸다.<sup>32)</sup>

김기림의 노비나 촌 방문기는 소문의 장소에 대한 답사의 기록이다. 그래  
서 일반론적 풍문과 체험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기자 김기림의 목적은 "...다고 한다"고 말로만 들어오던 그 장소를 자신  
의 발로 직접 밟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망명객의 애수'라는 감상적  
명제에 사로잡힌 그의 답사는 풍문의 상투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  
아 보인다. 광란의 "물장난과 마음 빈 웃음소리와 아우성"이 잃어버린  
왕국을 향한 "끝이 없는 향수"와 "끊임없는 열정"을 잠재우기 위한 안간  
힘에 불과하다는 풍평(風評)을 결론 삼은 한, 그의 눈에 비친 텅 빈 뜰은  
으레 '센티멘탈'하고, 그곳을 지키는 백인 가족의 신세 또한 "거의 울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sup>33)</sup>

노비나 촌은 "사나운 개가 있소.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오"라는  
게시판의 '돌문'으로 닫혀 있는, 겉으로는 배타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사  
나운 개"라던 그 '쉐퍼드'가 실은 호랑이 새끼와 함께 노는 "아주 순한  
개"임을 알게 된 김기림은 다음과 같은 풍자적 해석을 덧붙여놓았다. "역  
시 때문에 붙인 게시는 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비겁한 심리가 시키는  
한 시위운동에 지나지 않는 겉가보다."<sup>3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게시문이  
나 돌문의 허황됨보다 그것을 읽어내는 김기림 자신의 심리라 할 수 있

---

32) 김기림, 앞의 책, 266쪽.

33) "나는 쓸쓸한 '테니스 코트'를 지나서 나무그루 사이에 비틀어진 오솔길을 연가  
가 나는 오직 하나뿐인 지붕 쪽으로 향하여 내려갔다. 거의 울적에 가까운 이  
백인 가족의 왕성한 식욕을 기다리는 토종 암탉 두어 마리가 햇볕에 뽀뽀아리  
를 씻으면서 길 양쪽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위의 책, 265쪽.

34) 앞의 책, 266쪽.

다. 줄음에 빠진 셰퍼드 개의 형상도 그렇고, 야성을 상실한 호랑이 새끼도 그렇고, 김기림이 그리는 노비나 촌은 온통 발톱 잃은 맹수의 표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이 곧 한 때 '네 눈'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사냥꾼이었으나 혁명의 내전 중 열두 곳의 상처를 입고 쫓겨 온 망명 러시아인 일가의 표식이기도 하다. 텅 빈 휴양촌의 닫힌 돌문을 굳이 두드려 발 들여놓은 김기림의 저의는 바로 그 표식의 확인에 있었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마치 어느 ‘러시아’ 작가의 소설 속을 헤매고난 듯한 막연한 느낌”으로 그 ‘센터멘탈’한 뜰을 나온 기자 김기림은 비로소 시인으로서의 감상에 젖는다. 그에게는 장백산맥의 봉우리들도 온통 감상에 젖고, 가을도 슬프다. 혹 인생무상의 깨달음에 힘입은 때문인지, 오심암(吾心岩)에서는 생에 대한 애착마저 씻어버린다.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들리게 된 노비나 촌에서 “지나간 날 그들의 호사스럽던 생활의 면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두터운 앨범들을 훑어보게 되는 것은 비어버린 마음에 보태진 덩이라고 할 수 있다. 앨범을 보여준 러시아 처녀에게 그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고국에 가고 싶지 않소?”라고 물었더니  
 “갈 수나 있대구요” 하고 ‘미스·양코스키’는 쓸쓸히 머리를 흔든다.<sup>35)</sup>

김기림의 러시아인 별장촌 소묘에 흐르는 일관된 정조란 바로 이것, ‘잃어버린 것’을 향한 영원한 향수에 다름 아니며, 관찰자의 의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만큼, 노비나 촌은 ‘광란’에 가까운 향락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낙원의 폐허로 비쳐진다.<sup>36)</sup> 노비나 촌의 러시아인들이 ‘잃어버

35) 위의 책, 270쪽.

36) 이효석의 『성화』에 삽입된 노비나 촌 묘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붉은 푸른 흰 지붕의 비인 별장들은 알을 까가지고 달아난 뒤의 새둥우리요, 머루넝쿨과 다래넝쿨 아래 정자는 끝난 이야기의 쓸쓸한 배경이다. 조그만 극장 닫힌 문간에는 가을청결검사 종이표지가 싸늘하게 붙었고 홀 안에는

린 것'은 러시아 제국이기도 하고, 지난날의 영화와 꿈이기도 하고, 고향의 영지이기도 하겠지만, 노비나 촌을 방문한 김기림 또한 실은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을 터이다. 그의 「주을온천행」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끝을 맺는다.

마음은 품心岩 짙은 단풍 속에 길이 남겨둔채 미련한 '버스'는 나의  
빈 몸뚱아리만 싣고 터덜터덜 산길을 돌아온다.

그가 잃은 것은 비단 '오심암(말 그대로 '내 마음의 바위')에 두고 온 마음만이 아니다. 김기림의 여행기는 잃어버린, 즉 변해버린 조선 풍경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선인으로서 상실의 기록이기도 하다. 주을온천행의 출발점인 청진은 현재 바다를 메꾸기 위해 천마산을 깎는 토건사업 중이고, 평야를 흐르던 수성천은 '콩크리트' 방천(防川)이 되어 있다. 도시의 '번영'을 위한 개발행위라고 하지만, "청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화물자동차의 고함소리에 신암동(新岩洞)의 흰소(喧騷) 속에 일종의 진정치 못하는 활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영구적이며 또한 아님을 나는 모른다"고 김기림은 분명히 회의하고 있다.<sup>37)</sup>

여행기 끝부분은 더욱 명시적이다. 돌아오는 길에 "조선여관으로서는 집안에 따로 목욕탕을 가진 오직 한 집이라는 용천관"에 들었는데, 그곳은 "포근한 온돌 기분을 찾아들었지만 대하는 법이 하나도 조선식이 아니다." 여자들 또한 김기림이 알고 있는 '건강한' 북관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

울리지 않는 피아노가 거뿔게 들여다보인다. 벽 위의 그림이 칙칙하고 무대에 장치한 질그릇의 독들이 앙상하다. 운동장 구석의 먼지 앉은 벤취에도 때묻은 그네줄에도 지천으로 버려진 초콜릿 종이에도 사라진 꿈의 찌끼가 고요하게 때묻었을 뿐이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은 이야기의 부스레기와도 같다."  
이효석, 『이효석전집』 3, 창미사, 278쪽.

37) 김기림, 앞의 책, 263쪽.

북도 아낙네들이 그 손발이 온몸과는 조화되지 않도록 크지만, 오히려 나그네의 찬탄을 받는 까닭은 어디까지든지 굳센 자립의 정신과 분투의 기개가 그 건강한 육체에 넘치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의 자랑은 서울 등지의 하도 많은 기생과 창기 속에서도 좀체로 그들 북도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에 있었다. 지금 그리 고상하다 할 수 없는 이 직업에 종사하는 그들을 앞에 놓고 거기서도 역시 자본의 공세 아래 힘없이 쓰러지는 지나간 날의 탄식을 듣는 것이다.<sup>38)</sup>

함북 성진이 고향임에도 여느 관북 출신 문인들(가령 백석, 이용악, 김동환, 이찬 등)과 달리 자신의 작품에 좀처럼 북국 정취를 담지 않았던 김기림에게서 드물게 마주치는 대목일 법하다. '서구근대문명을 지향한 모더니스트 김기림'의 초상에 필히 붙여야 할 각주일 수도 있다. 아무튼 "자본의 공세 아래 힘없이 쓰러지는 지나간 날의 탄식"이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탄식에 다름 아니며, 그것이 곧 '잃어버린 것의 향수'라는 총칭으로 명명될 애수의 감정임을 부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김기림이 근대성을 경계로 하여 왕복한 주을온천 답사의 중심에는 '과거'의 화석인 노비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노비나 한가운데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저 "뒹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의 오심암이 위치한다. 실제 여행 경로와 여행기록의 구성 모두가 그렇다. 그것은 '잃어버림'의 체험 경로인 동시에, '지금 여기'의 근대에서 과거와 원시로 향하는 마음의 경로일 것이다. 망명 러시아인의 모습을 빌린 한 식민지 조선인의 '센티멘탈 저니'라고도 할 수 있다.

김기림은 그날 일본식 여관으로 변해버린 '용천관'에 머무는 대신, "마음은 呑心岩 짙은 단풍 속에 길이 남겨둔채 [...] 빈 몸뚱아리만 싣고 터덜 터덜 산길을 돌아"왔다고 했다. 청진을 떠나 노비나의 오심암으로 이어진 여행 경로가 낙원을 찾아 떠난 순례길이었다면, 귀환의 경로는 '낙원의 표상-오심암'으로부터 '실낙원의 증표-노비나'로, 그리고 마침내는 '실

---

38) 위의 책, 271쪽.

낙원의 실제-조선'으로 뒷걸음질 치는 하강의 연속선에 불과하다. 김기림이 따라간 여행길의 구도는 이처럼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지극히 상징적이다. 「주을온천행」이 단순한 명소탐방기를 넘어 근대인의 낙원상실기로 읽힐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 3. 노비나 촌의 특수성: 맺는 말

주을의 노비나 촌은 “하르빈의 호텔 모데른과는 정반대”인 장소였다는 것이 그곳을 방문했던 백계 러시아인 JI. H. 안데르손(Андерсон)의 회상이다. 하르빈과 주을의 대비는 도시와 시골, 인공과 자연, 퇴폐미와 건강미의 당연한 대비를 넘어, 그곳에 자리 잡은 백계 러시아인 공동체의 성격과 관점에 있어서도 다분히 상대적인 변별성을 확인시켜준다. 똑같은 무국적 망명 러시아인들의 피난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 자신이 바라 본 두 망명지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러시아인들의 노비나 회고에는 ‘애수’, ‘향수’, ‘퇴폐’, ‘쓸쓸함’ 등의, 조선인 관찰자가 느끼고 상상하며 사용한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들 부재한다. ‘동양의 파리’인 서구적 국제도시 하르빈에서 부유하는 러시아인, 그리고 자신의 ‘영지’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끼리 ‘휴양’하는 러시아인은 모습과 처지에 있어 서로 상반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르빈과 주을의 백계 러시아 사회라는 상이한 두 양상은 망명사회가 위치한 배경적 공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노비나’라고 스스로 명명한 자치공간에서만큼, 러시아인들은 ‘주인’이었지 룸펜 계층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 효석이 소설 『벽공무한』에서 말한 “쭈정이”는 분명 아니었다. “쭈정이는 쭈정끼리 한 계급이다”라는 하르빈의 역설이 과연 노비나 촌에서도 유효할지는 그래서 의문이다.

하르빈(만주국)의 조선인이 경험한 이중심리의 한편에는 “‘유사 해방감’과 ‘의사 제국주의자’로서의 포즈”가,<sup>39)</sup>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쭈정이

사상"과도 같은 자기비하의 참담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 하르빈에 위치한 조선인의 복합심리가 하르빈을 배경으로 둔 망명 러시아인에 대해서도 우월감과 열등감,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양가적 입장으로 유사하게 발현될 수 있음은 자연스런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도시 하르빈에서 경험된 양가적 관점이 식민지 조선의 자연 공간에 이르러서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김기림이 바라본 노비나 촌의 백계 러시아인에게서 하르빈츠이(харбинцы, 하르빈의 백계러시아인)와의 변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김기림이 하르빈을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기인된 한계일 수 있다. 간도 여행(1930)이 만주 경험의 전부였던 그로서는 용정에 묻힌 백계 러시아인의 묘지를 보며 상상했던 "조국을 그리우는 한 많은 '쉴레나-드'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sup>40)</sup> 이후 노비나 촌에서 느끼게 되는 센터멘탈리즘의 감정 모두가 '나라 잃은 망명자의 애수'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쉽사리 수렴되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이다.

반면, 하르빈과 노비나 두 곳을 다 여행하고 기록했던 이효석에 오게 되면 양상이 훨씬 복잡해진다. 그는 "절실한 생활감정에 기인한 생리적인 것"<sup>41)</sup>으로서의 이국취향을 노비나 촌 백계 러시아인을 통해 해소하던 중 급기야 두 차례의 하르빈 여행을 감행하여 단편 「하르빈」과 장편 『벽공무한』을 집필했고,<sup>42)</sup> 노비나에 대해서도 창작 초반인 1932년의 「북국 점경」에서 말기인 1940년의 일본어 수필 「주을소묘」에 이르기까지 수편의 글을 남겼다.

주을에서 하르빈을 거쳐 다시 주을로 이어지는 그의 창작 렌즈에 기록

39) 김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522쪽.

40) 김기림, 「간도기행」(『조선일보』, 1930.6.13.~6.26 연재), 『만주기행문』, 107쪽.

41) 정한모, 앞의 글, 80쪽.

42) "씨는 또 주을 부근 재주(在住)의 백계 로인들의 생활이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흥미는 쌓이고 쌓여서 1939년 여름의 하루빈 여행에까지 발전했지만 이것 역시 결코 백인 숭배라는 그런 천박한 동기에서가 아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유진오, 「작가 이효석론」, 『이효석전집』 8, 창미사, 1983, 39쪽.

된 백계 러시아인의 형상은, 김기림의 경우와 달리, 굴절과 수정의 과정을 거친 보다 다양한 초상으로 확인된다. 특히 백계 러시아인에 대한 첫 인상기인 「북국점경」과 마지막 인상기인 「주을소묘」 사이에는 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못지않게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두 민족어, 그리고 서로 다른 ‘국어’ 사용에 따른 입장의 간극이 배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하르빈과 주을, 소설과 수필, 그리고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차별된 환경과 방식을 통해 이효석의 백계 러시아인 담론이 구현해낸 제3의 상상향에 대해서는 미래의 지면에서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기림, 『김기림전집』, 심설당, 1988.
- 김 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 베리만 S., 신복룡·변영욱 역주, 『한국의 야생동물지』, 집문당, 1999.
- 샤브쉬나 F. I., 김명호 옮김,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1992.
- 소재영 편, 『간도 유랑 40년』, 조선일보사, 1989.
- 이효석, 『이효석전집』, 창미사, 1983.
-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사, 2010.
- 황동하, 「식민지 조선의 백계 러시아인 사회」, 『향토서울』 83, 2013.
- 「대경성의 특수촌」, 『별건곤』 33, 1929.9.
- Bryunner, Rock, *Empire & Odyssey: The Brynners in Far East Russia and Beyond*, Steerforth, 2006.
- Clark, Donald N. "Vanished Exiles: The Prewar Russian Community in Korea," in Dae-Sook Suh 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 41-57.
- \_\_\_\_\_.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Eastbridge, 2003, pp. 142-155.
- Raeff, Marc. *Russia Abroad: A Cultural History of Russian Emigration, 1919-1939*, Oxford Univ. Press, 1990.
- Taylor, M. L. *The Tiger's Claw*, Burke, 1956.
- Андерсон, Л. Н. А помнишь тот закат у моря? Валерий Янковский: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Владивосток. 2010. С. 143-52.
- Волков, С. В. К вопросу о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Корею в начале 20-х годов.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ып. 2. Изд-во восто

- коведения РАН. 2001. С. 149-156.
- Гинце, М. М. Новина и Лукоморье: поместья семьи Янковских в Корею (Воспоминания юного дачника). *Русская Атлантида*. Россия. 2004:13. С. 21-32; 2004:14. С. 22-29; 2004:15. С. 37-49.
- Кушнарцева, Т. *Янковские: Записки клуба 'Родовед'*. Изд-во ВГУЭ С. 2008.
- Ланьков, А. Н. Русский Сеул: 1917-1945. <http://www.russkie.org>.
- Симбирцева, Т. Семья Янковских в истории Приморья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рея Сарам*. <http://koryo-saram.ru>.
- Янковский, В. Ю. *В поисках женьшеня: Рассказы*. Верхне-Волж. кн. изд-во. 1972.
- \_\_\_\_\_. *Потомки Нэнуни: повесть и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ик. 1986.
- \_\_\_\_\_. *Долгое возвращение: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Верхне-Волж. кн. изд-во. 1991.
- \_\_\_\_\_. *Новина: Рассказы и были*. Золотые ворота. 1995.
- \_\_\_\_\_. *От гроба господня до гроба ГУЛАГА: БЫЛЬ*. Маштекст. 2000.
- \_\_\_\_\_. Novina.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2002. No.3(10). С. 119-133.
- \_\_\_\_\_. Нэну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диссея. Рубеж. 2007.
- \_\_\_\_\_. От Сидеми до Нови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сага. Рубеж. 2011.
- \_\_\_\_\_. *et als. Корея. Янковским: Творческая сага*. Маркарт. 2003.

〈Abstract〉

## Paradise Lost or Paradise Regained? Yankovsky's Novina Village in Korea

Kim Jean Young  
(Yonsei University)

The *Novina* village, an estate owned by the White Russian Yankovsky family, existed near the Jueul(Shuots) hot spring in Northern Ham-Kyung province from 1926 till 1945. Fled from the Bolsheviks after the Civil War, the Yankovskys, besides farming and hunting, ran a summer resort place for White Russians, turning it into a “most cultural and truly Russian nest” for the émigrés in the Far East. Unlike the White Russian roamers in other cosmopolitan cities like Harbin, Shanghai, Shin-jing, the White Russians in this legendary estate formed an independent commune of their own, and within its boundary they sojourned as masters of themselves. The primitive nature of Joseon and Jueul, as opposed to the modernized hybrid cities of Shanghai and Harbin, underscored the privileged and self-protective character of *Novina*, which its visitors and residents would long remember as a paradisial ‘fairy-tale’ place.

Interestingly enough, *Novina*'s idealistic image given by its insiders is clearly contrasted to the way how Koreans observed and recorded it from outside. Kim Gi-Rim, for example, depicted *Novina* with great curiosity in his travelogue on Jueul, but it was to be overshadowed by his sentimental preconception on White Russians as people who had lost their kingdom and national self-identity. It is most likely that this sense of deprivation is kept in tune with what Kim

Gi-Rim himself might have gone through as a colonial Korean. It is in this sense that his travelogue can be symbolically read as a record of a modern man's 'Paradise Lost'.

Another modernist writer Lee Hyo-Seok frequented *Novina* and left a number of writings. He travelled Harbin as well as *Novina*, and in the course of 8 years he wrote both novels and essays, both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on his impressions of the village. His is a case that requires a much deeper discussion in the future study.

**Key words:** Jueul(Shuots), Novina, White Russians, Yankovsky, Kim Gi-Rim,  
Lee Hyo-Suk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

